

■ 주요 기사

○ 조선 · 건설 구조조정 관련 (4건)

동아	‘조선 빅3’ 유지-2만명 감원… 알맹이 빠진 경쟁력 강화案
매경	건설업, 상시 구조조정 활발…포스코ENG 10월 31일 450명 희망퇴직
한겨레	정부 “조선업 정규직 2만명 줄여야…하청은 6만명 안팎 감소”
경향	조선3사, 2년 내 2만명 감축

○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임금 · 종업원수 분석결과 (3건)

동아	시총 상위 100개사 작년 평균 임금 7347만원
한겨레	시총 100대 사 평균연봉 7300만원…지난해 수익성 개선 ‘뚜렷’
경향	시가총액 100대 기업 평균 연봉 7347만원…4년 만에 20% 늘었다

○ 하청근로자 사고 관련 (1건)

경향	[단독]SK브로드밴드 센터 도급기사 ‘전신주 추락사’…실적 압박에 ‘빚속 작업’ 지시 정황 잡았다
----	------------------------------------------------------------------------

■ 주요 칼럼 · 사설

○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1건)

매경	조선 살리기 정부 결정, 이젠 경영진과 노조가 답할 때다
----	-------------------------------------------------

○ 철도파업 관련 (1건)

매경	[기자 24시] 철도파업, 이제는 막 내릴 때
----	-------------------------------------------

○ 노인 일자리 관련 (1건)

중앙	[분수대]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10兆 혈세 낭비하고도... 역대 연봉 받겠다는 産銀·輸銀 B1면
		내용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31일 '환골탈태하겠다'며 조직 개편 등 혁신안 발표. 그러나 직원 3천여명 중 10여명에 불과한 행장·부행장 연봉만 5% 삭감, 자연발생 정년퇴직자까지 인력감축규모에 포함시켜 맹탕대책이라는 지적
중앙	노동	제목	산은·수은, 구조조정 기업에 낙하산 못 보낸다 E2면
		내용	산은과 수은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며 퇴직 임직원의 구조조정 기업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31일 발표. 산업은행 임직원의 낙하산 인사가 구조조정 기업의 부실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 받아들인 조치
	고용 복지	제목	[간추린 뉴스]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 고용 땀 보조금 A15면
		내용	일본 정부는 버블경제 붕괴 후 일자리가 대폭 줄었던 '취업빙하기(1993~2005년)'에 고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직업이 없거나 비정규직인 세대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연간 500여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내년부터 시행
		제목	[분수대]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없다 A31면
		내용	노·장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곳곳에서 떠든다. 하지만 늘기는커녕 어르신 몫으로 남아 있던 최후의 보루에서 조차 쫓겨나고 있는 게 차디찬 현실
동아	노동	제목	'조선 빅3' 유지-2만명 감원... 알맹이 빠진 경쟁력 강화案 A1면
		내용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살려 이른바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그 대신 조선 3사는 2018년까지 직영 인력 규모를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줄이고 현재 31개인 독을 24개로 감축하는 등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제목	시총 상위 100개사 작년 평균 임금 7347만원 B4면
		내용	31일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시가 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 최근 5개 사업연도(2011~2015년) 보고서가 있는 8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조사 대상 기업의 평균 임금은 7347만 원, 평균 인원은 8633명으로 조사
한경	노동	제목	대수술 한다더니...'재탕' 그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혁신안 10면
		내용	두 국책은행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신뢰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구태의연하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비판도 나왔다.
	고용 복지	제목	광주, 50세 이상 퇴직자 공공근로 28면
		내용	광주광역시시는 만 50세 이상 퇴직자 28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취업자에게는 하루 수당 최대 1만6000원과 활동비 8000원을 지원한다

매체명	주 제	내 용	
매경	노동	제목	산은·수은 혁신안 '태산명동서일필' 14면
		내용	국책은행 혁신안에 대해 700억원 규모 운영비 절감 효과만 기대되는 소규모 인력·조직 감축에 그쳤을 뿐, 자회사 관리능력 강화나 산업 구조조정 역할수행을 위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생색내기 수준이란 지적
		제목	건설업, 상시 구조조정 활발...포스코ENG 10월 31일 450명 희망퇴직 27면
		내용	국내 건설업계가 상시 구조조정이 한창. 내년부터 미래 주 택경기 불확실성에 해외수주까지 급감하면서 '칼바람 업황'이 닥치면 기존 호황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제목	[기자 24시] 철도파업, 이제는 막 내릴 때 34면
		내용	철도노조는 "대체인력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적반하장식 주장과 함께 총파업 중. 대체인력을 비롯한 비정규직과 파업 불참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 하지만 이제는 '뭇이 중헌디'를 재고할 때
한겨레	노동	제목	정부 "조선업 정규직 2만명 줄여야...하청은 6만명 안팎 감소" 9면
		내용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 약 2만여명을 감축해야 하고 협력업체(하청)노동자는 6만명 안팎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제목	시총 100대 사 평균연봉 7300만원...지난해 수익성 개선 '뚜렷' 18면
		내용	지난해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의 종업원 평균 급여는 7300만원으로 4년 전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매출액은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수익성은 2014년을 저점으로 2015년 큰 폭으로 향상
	고용 복지	제목	고용 차별에 '독박육아'까지...“아직도 여성에만 무거운 짐” 11면
		내용	지난 3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등을 분석해 내놓은 '일과 여성' 관련 지표를 보면, 29개국 가운데 한국이 보육비용은 가장 적게 들지만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격차는 각각 28위와 29위로 꼴찌 수준
경향	노동	제목	[단독]SK브로드밴드 센터 도급기사 '전신주 추락사'...실적 압박에 '빚속 작업' 지시 정황 잡았다 10면
		내용	비 오는 날 전신주 작업을 하다 지난 9월 추락사한 SK브로드밴드 도급기사가 이전에도 우천 중 작업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SK브로드밴드 센터(하청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책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 복지	제목	조선3사, 2년 내 2만명 감축 1면
		내용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등의 현행 '조선 3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2018년까지 조선 3사 인력 2만명을 감축하고 도크도 7개를 줄인다.
제목	시가총액 100대 기업 평균 연봉 7347만원...4년 만에 20% 늘었다 18면		
내용	한국거래소가 31일 코스피 시총 상위 100개사의 최근 5개 사업연도 보고서로 88곳의 고용·임금 현황 분석결과, 지난해 회사당 평균 종업원 수는 8633명, 연평균 급여는 7347만원. 2011년 대비 종업원 수는 7.9%, 연평균 급여는 20% 증가		

<끝>